

연성 PCB도 '다층' 경쟁

업계, 채산성 악화 타개·차별화 위해
4층 이상 제품 주력... 시장 선점 노력

일반 PCB 시장에서 '다층인쇄회로 기판(MLB)' 시대가 만개한 가운데 폴리이미드(polyimide) 재질을 이용한 연성(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PCB) 시장에도 다층(멀티 레이어) 시대가 열리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연성 PCB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양면 및 단면 위주의 사업구조에서 4층 이상의 다층 연성 PCB 개발에 눈을 돌리면서 이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간

경쟁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인터플렉스(대표 김한형)는 4층 연성 PCB를 양산하며 이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최근엔 방산용·의료기기 등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6층 및 14층짜리 다층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올해 초 연성 PCB 시장에 신규 진출한 서광전자(대표 이희술)는 단면보다는 양면 또는 4층 위주의 연성 PCB 양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연성 PCB 시

장에서 후발 업체인 만큼 선발 업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다층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연성 PCB 시장 진출을 모색중인 엑큐리스(대표 안희찬)는 단면 제품보다는 양면 양산에 주력하는 한편 액정표시장치(LCD)·이동통신단말기 등에 사용되는 4층 규모의 연성 PCB 시장에도 뛰어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말 양면 연성 PCB를 시작으로 이 시장에 참여한 코스모텍(대표 전우창)은 고가의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을 겨냥해 현재 4층짜리 연성 PCB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4층 제품의 양

산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중순부터 4층짜리 연성 PCB를 생산하고 있는 영풍전자(대표 최창호)도 사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6층짜리 제품을 최근 개발, 이동전화단말기·CD롬·디지털타기능디스크(DVD)플레이어 등 다층 기판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연성 PCB업계가 이처럼 다층 기판 시장 선점에 주력하는 것은 양면이 단면보다 2.5배 높게 판매되는 등 다층 연성 PCB가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하지만 연성 PCB 기술력의 축적에 따른 자신감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13일부터 열리는 대전 국제지능로봇展 로봇업체 '비장의 카드' 총출동

가정교사·청소로봇 등
신제품 앞다퉀 개발



로보다임의 가정용로봇 '아이작'



한울로보틱스가 개발한 대테러용 화생방 감지로봇

다음주 대전에서 열리는 국제지능로봇전시회(2002 IIREX)를 앞두고 신종 퍼스널 로봇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로보틱스연구조합은 월드컵 기간중인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특별전 시장에서 국제지능로봇 전시회를 개최한다.

월드컵 광풍특수와 맞물려 최소 10만명의 인파가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전시회를 맞아 주요 로봇업체들은 비장의 카드로 숨겨온 신종 로봇제품을 선보여 대외적인 기술력 과시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진로보틱스(대표 신경철)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정교사로봇을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다. 모든 기능이 음성인식으로 작동되는 가정교사로봇은 어린이가 원하는 교육콘텐츠를 무선랜으로 다운로드해 제공한다. 오는 12월경 상용화될 가정교사로봇의 판

래용 화생방로봇 등을 출품한다.

이 회사의 청소로봇은 100W급의 강력한 흡입력과 좁은 곳에서 360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싱크로이동능력을 갖춰 복잡한 실내환경에도 청소시간이 평균 1분(40평 아파트는 40분)이던 충분하다. 화생방로봇은 위험지역에 들어가 방사능과 독성물질 오염여부를 탐지하는 태러리 장비로 월드컵 기간중 위험상황에 대비해 군당국이 실전배치한 상황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주덕영)은 손바닥만한 크기에 4개의 프로펠러로 전후좌우 자유롭게 움직이는 미세비행로봇을 선보인다. 로보다임(대표 김덕우)은 인공지능형 대화프로그램을 장착한 퍼스널로봇 '아이작'의 업그레이드 모델과 모바일 키오스크를 공개한다.

이밖에 마이크로로봇은 초당 4프레임의 화면을 전송해 원격지에서 제어하는 IMT2000로봇, 조이메카는 성인에 올라타는 로봇 이동체를 출품해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배일환기자 baillh@etnews.co.kr)

LG전자 DMC 사업부

PCB 1위 '자신만만'

LG전자가 인쇄회로기판(PCB)사업에서 '일등 LG 달성'을 위한 의지의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세계 정보통신 경기 침체로 연초까지 인력감염 등 구조조정의 심한 몸살을 앓았던 LG전자 디지털마이크로서킷(DMC)사업부는 최근 한발 앞선 차별화된 기술개발 등을 통해 PCB시장에서 선두 기업으로 나서기 위한 전열 재정비에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을 설비 증설에 투자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란 복병을 만나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최근 공장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적자구조 탈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첨단 제품인 임베디드(커패시터)

적자탈출 전열 재정비...매출 구조 개선

구자홍 부회장 전폭 지원 약속 '사기충천'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전자 구자홍 부회장이 최근 경기도 오산 사업장을 방문,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뜻에서 '흑룡'이란 별도의 낙네임을 LG전자 DMC사업부에 부여하고 PCB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크게 고무된 모습이다.

지금까지 구 부회장으로부터 낙네임을 부여받았던 에어컨사업부·냉장고사업부 등이 모두 1~2년내 부진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놀랄 만한 경영 실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마치 '상공의 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위기가 반전된 때문인지 매출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PCB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 이 제품은 아직 물량은 적지만 맥스 테데이터 등에 공급,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삼성전기 등 경쟁업체들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PCB의 원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첨단공법인 네오맨해튼법 프린터커넥션(NMB)의 상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

LG전자 DMC사업부 한 관계자는 "오는 9월께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등 세계 PCB시장에서 1위로 나서기 위한 밑그림은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광부품업체 활로찾기 '고심'

통신시장 회복 기미 없어
사업다각화 등 추진

통신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부품업체들이 활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누스·케이비아이 등 광부품업체들은 통신 시장 전망이 계속 불투명하자 사업 다각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비아이(대표 허남기)는 올해부터 CDMA 서비스를 시작하는 중국시장을 겨냥, 중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광산업이 당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DVR 및 DR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지누스(대표 김광호)도 보안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해 올초부터 생산에 나선 DVR 전담의 영상통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이 회사는 이를 계기로 해외 보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수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보안솔루션 사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충원했으며 곧 추가 인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올 하반기에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됐던 통신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광부품 업체들의 생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오랜기간 집 비워도 애완동물 먹이 걱정 뚝" 쓰리비, '펫와치' 출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애완동물에 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

쓰리비시스템(대표 최백영) http://www.mypetwatch.com)이 최근 선보인 '펫와치·사진'은 원거리에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먹이도 주는 아이디어 상품. 고객의 이동전화단말기·PC로 먹이공급장치를 제어해 최장 일주일까지 사

료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사료가 나올 때는 벨소리를 들려줘 먹이시간을 알려준다.

이 제품에는 웹카메라가 달려 있어 원거리에서 애완동물이 실제로 먹이를 먹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가격은 대당 50만원.

문의 (02)3460-2088
(배일환기자 baillh@etnews.co.kr)

광섬유 정렬장비 출시 아덱트코리아

아덱트코리아(대표 이종업)는 광섬유 두 가닥의 광축을 5초 내에 정렬해 주는 광섬유 포지셔닝장비 '나노스테이지 6'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숙련된 기술자가 개당 5분 이상 걸리는 광섬유 광축정렬작업을 단 5초에 완결하는 일종의 로봇장치인 이 제품은 X·Y축은 50nm, Z축 이동시 25nm의 정밀한 정밀도를 자랑한다.

(배일환기자 baillh@etnews.co.kr)

미디어포드에 기술 지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원장 김춘호) http://www.keti.re.kr)은 최근 보이스XML 솔루션 업체인 미디어포드(대표 김기철)와 기술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미디어포드에 음성 플랫폼 관련 기술을 비롯해 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이동전화단말기 위치 추적 시스템

인텔링스, 정밀도 측정장비 발표



인텔링스(대표 서준길 http://www.intelinx.co.kr)는 이동전화단말기 위치 추적시스템(GPS One)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GPS One 에널라이저(사진)를 발표했다.

고정밀 DGPS 신호로 오차반경 1m의 위치정밀도를 지원하는 이 제품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켈컴 MSM칩 3300, 5100을 내장한 이동전화단말기(GPS One 단말기)와 비교해 오차값을 분석해준다.

또 GPS One 단말기의 상태감시를 위한 DM(Diagnostic Monitoring)기능과 데이터를 시뮬레이션기능, 이동전화단말기 3대를 동시 측

정하는 멀티포트를 지원한다.

인텔링스측은 GPS One 에널라이저를 KTF에 위치추적서비스 용으로 공급했으며 향후 GPS시장의 확대에 따라 GPS One 측정장비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일환기자 baillh@etnews.co.kr)

사우디 AMR시장 진출 블루맥스커뮤니케이션

블루맥스커뮤니케이션(대표 하경호) http://www.bluemax21.com)이 사우디아라비아 원격검침시스템(AMR)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올 하반기 사우디아라

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검침시스템사업에 자사의 원격검침시스템(모델명 NS-AMR) 2만대를 시범 공급하고 2003년부터 연간 50만대를 수출한다고 6일 발표했다.

블루맥스커뮤니케이션은 중동 AMR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일환기자 baillh@etnews.co.kr)